

김현승의 인간적인 면모와 시세계

권영진 *

I. 인간적인 면모

II. 시세계- 사물(자연)의 이미지 구조와 초월적 상상력

I. 인간적인 면모

선생님은 1913년에 나셨고 숭실전문 재학시절에 시가 동아일보에 발표되면서 시작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타계하실 때까지 3백 여 편의 독창적이고 주옥같은 시를 발표하신 이 나라의 큰 시인이셨습니다. 다형선생을 생각하면 찻집에서 커피를 마시며, 시상에 잠겨 계시던 모습과 마른 나뭇가지 위에 홀로 앉아 있는 까마귀가 떠오릅니다.

제가 선생님을 처음 본 것은 대학 2학년 때인 1960년 선생께서 모교에 부임하신 후입니다. 선생님은 매우 재미있고 명쾌하게 강의를 잘 하셨습니다. 문학의 밤 행사에서 행사가 끝난 뒤 칭찬을 해주시고, 시를 쓴 것이 있으면 가져오라고 하셔서 선생님께 시 몇 편을 가지고 찾아뵈었습니다. 졸업 후에 선생님께서 제 시를 『현대문학』에 실어주셨고, 모교의 교양 국어 강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 계속 선생님을 가까이 뵈어 왔습니다.

선생님은 이목구비가 수려한 미남형이셨습니다.

어느 날 빛바랜 젊은 시절 사진을 보여 주셨는데, 아주 잘 생기시고 매우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 숭실대 국문학과 명예교수

이미 「자화상」을 쓰실 때는 중년을 훨씬 넘기신 뒤였습니다.

선생님께서서는 어렸을 때부터 스포츠를 좋아하셨고, 만능 스포츠맨이었습니다.

특히 축구는 숭실중학시절에는 대표선수였고, 광주에 내려가셔서 올스타로 활약하셨었습니다. 선생께서 서울에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아 개교기념일 때인가 가을 축제 때인가 교수팀과 교직원팀간에 축구시합이 있었는데, 마침 교수팀에서 패널티킥을 얻었고, 선생님께서서는 강하게 포즈를 잡으시더니 골을 넣으셨습니다. 그 때 주의에서 박수를 치자 “패널티킥이라는 것은 세계 차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차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가신 듯 천진난만하셨던 선생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잘 생각하고 건강하신 선생님은 숭실전문시절부터 고질적인 위장병을 얻으시고, 이미 중년에 접어들면서는 야위어지셨습니다.

선생님의 성품은 깐깐하고 강건하셨습니다. 내성적이고 완고하셨습니다.

사람들과 좀처럼 어울리는 일을 좋아하지 않으시고, 사람 사귀는 일도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로 홀로 계셨습니다. 그 당시 연구실이 따로 없고 교수실을 함께 썼었는데, 누가 특별히 말을 걸지 않는 한 홀로 생각에 잠겨 있으셨습니다.

대학원 강의 때에도 얼굴을 마주보고 강의하시는 일이 거의 없으셨고, 시선을 아래에 두시고 말씀하셨고, 걸으실 때도 주위를 살피거나 위로 봄이 없이 늘 땅 아래를 보셔서 선생님과 한번도 인사를 나뉘보지 못했다는 교수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선생님께서서는 제자사랑만은 각별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스승과 제자라는 사이를 떠나 마치 다정한 친구같이 대단히 인간적이셔서 존경하며 따랐고, 주위에 젊은 시인과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선생께서는 고향 광주를 사랑하시고 가끔 광주 얘기를 하셨는데, 광주에는 애환이 서려 있는 듯하셨습니다. 젊은 시절 신사참배 거부 주동자로 몰려 옥고를 치루시고 모교가 폐교된 뒤 광주로 내려오셔서 해방될 때까지 근 18년을 시 한편도 못 쓰시고 침묵하셨었는데, 선생께서는 당신의 생애에서 그 시절이 가장 암담했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생활고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겠지만 일제말기라는 참담했던 우리의 시대적 상황이 선생님으로 하여금 절필하고 암담하게 만들지 않았

나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기호나 취향은 술 담배를 전혀 못하시고, 유독 커피, 냉면, 설렁탕을 좋아하셔서 서 아무데나 안 가시고 입맛에 드는 커피집과 냉면집을 찾으셨고, 누구를 만날 때도 학교나 시인들이 모이는 다방이 아니라 꼭 커피와 냉면 맛이 좋은 집에서 만나셨습니다.

단골찻집은 무교동에 있었던 망고수 다방이고 냉면집은 지금도 중앙일보 뒤에 있는 황수면옥의 육수가 담백해서 좋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의 커피에 대한 애정은 유별나셨습니다. 선교사 집에 드나들며 커피를 배웠는데, 처음에는 막걸리 마시듯이 사발로 마셨다고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위장병이 커피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덕에 방문을 하면 꼭 손수 커피를 타주셨는데, 하루는 제 후배가 “선생님,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자 “자네가 타면 맛이 없어, 내가 커피 타는 법을 알려 줄테니 봐!” 하시면서 물을 끓이는 것부터 차례차례 알려주셨고, 강조하신 점은 커피의 빛깔이 진한 황토색이 나아한다는 것과 한꺼번에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한 모금씩 커피가 식을 때까지 천천히 마셔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때 전수받은 커피맛이 제 커피맛입니다.

선생님은 대체로 간소하고 담백한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또 버스를 늘 타셨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택인 수색까지 한 시간이 넘게 걸리는 먼 거리였는데도 꼭 버스를 타고 출퇴근하셨고, 대전캠퍼스로 출근하실 때도 서울역 앞에서 떠나는 버스를 타셨습니다. 모임이나 회식 때, 시간이 늦어 여자들과 함께 택시를 타는 경우엔 조금 가다가 내려서 버스로 갈아타셨습니다. 선생님께서 왜 그렇게 버스를 좋아하시는가 여쭙봤더니 “버스를 타면 다양한 행인들을 만날 수 있고, 차창으로 스치는 풍경 속에서 시상이 떠올라. 그래서 버스는 내 시의 보고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시에 「군중속의 고독」이라는 시가 있는데 아마 선생님이 버스 안에서 군중속의 고독을 느낀 것을 쓰신 게 아닌가합니다.

서울에 오신 뒤에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셨는데, 그 많은 시들 중에서 상당수는 버스 안에서 구상된 것은 아니었나라고 짐작해봅니다. 선생께서는 서민적이고 검소하셨습니다.

선생님의 의외로 서부극을 좋아하셨습니다. 그 당시는 서부극을 많이 상영하기도 했지만 다른 좋은 영화들도 많이 있었고 저도 영화를 좋아하는

데, 어느 날 “황야의 7인”인가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함께 관람을 하고 나오셔서 주인공인 대머리 친구보다 무명인 조연의 연기가 멋지다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무명의 조연배우가 대스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연기를 보는 안목도 있으시구나.’ 하고 생각했었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와 설렁탕을 먹으며, 선생님께서 왜 서부극을 좋아하시느냐고 여쭙봤더니 ‘악당들이 판을 치고 악인이 이기는 것 같지만, 끝내는 의인이 이기고 정의가 승리하는 이런 통쾌한 세계가 여기 말고 어디 있느냐 우리의 역사와 현실이 그러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승만 독재, 4.19, 5.16을 겪으시며 자유가 억압당하고 정의가 실현되지 못한 현실에 대해 대단히 안타까워하셨습니다.

하루는 신문기자로 있는 제자친구와 선생님을 만났는데, 선생님이 청렴하시다는 것을 감안해서였는지 제자가 모 중년 시인의 스캔들을 폭로해야겠다고 하니 선생님께서는 화를 내시면서 “아니 강한 자의 횡포를 폭로해야지 가난하고 약한 시인의 로맨스나 들춰서야 쓰겠느냐?” 하셨고, 머쓱해진 기자는 기사를 쓰지 못했습니다. 선생님은 강한 자의 횡포와 불의에 대해서는 질책하셨지만 가난하고 약한 자에 대해서는 무한한 사랑을 보내셨습니다. 이런 자유와 정의, 약한 자에 대한 마음은 선생님의 「무기의 의미」와 같은 시편 속에 암암리에 표출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선생님이 얼마만큼 당신의 작품과 시에 대해서 칭찬하시는가에 대해서는 송전대학교 시절 고 김영남 총장님이 계실 때라고 기억합니다. 교가를 새로 짓기로 하고 작사를 선생님께 부탁드렸는데, 작시를 해 주시고 그때 돈으로 5만원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어찌해서 작곡을 한 김동인 선생은 20만원을 받는다고 소문이 있었는데, 선생님은 대단히 불쾌해 하시면서 이것은 시에 대한 모독이다. 어떻게 시는 5만원이고, 작곡은 20만원이나 하시면서 당장 가서서 5만원을 집어던지고 시를 찾아오셨습니다. 총무처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총장께서는 모교에 봉직하고 있고 자신의 솜씨로 교가를 작사했으면 작사료 없이도 영광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작사료 적다고 작품을 다시 가져갔다고 당장 가서 되찾아오라고 하셨고, 총무처장이 다형선생님께 다시 갔지만 선생님께서는 막무가내셨습니다. 난처해진 총무처장은 제자인 저에게 와서 전후 사정을 얘기하고 선생님을 설득해 달라고 했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니 총장께서 선생님을 오해하신 것이

마음에 걸려 저는 용기를 갖고 선생님택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에는 양보를 하시고 학교에 시를 주시면 안 되겠냐고 여쭙보니 선생님께서는 “자네, 그래 가지고선 앞으로 시 못써! 그만 소리하려면 당장 돌아가!” 처음이자 마지막인 이 한마디 말씀이 예언처럼 비수로 꽂혀 아직도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선생님은 본인의 작품, 시에 관해서는 아주 철저하셨습니다. 물론 작곡료와 같이 20만원을 받으시고 작시를 하셨습니다.

선생님의 기독교 영향관계와 관련 있는 것 같은데 하루는 커피를 마시면서 “선생님은 좋아하는 시인이 있으십니까?” 여쭙었더니 “예수야.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유일한 스승이고, 가장 위대한 시인이야.” 그래서 제가 또 “예수님 말고 또 좋아하는 시인이 누구십니까?” “T.S 엘리엇, 릴케, 발레리, 워즈워드” 네 분을 드셨습니다. “국내시인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니, 정지용과 김기림이라고 답하셨습니다. 그 뒤에 제가 공부하면서 선생님 시는 철저하게 기독교 정신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세계적인 시인으로부터 나름대로 조금씩은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특히 정지용과 김기림의 경우는 선생님의 작품 활동을 하시던 30년대 모더니즘, 니힐리즘 기법을 수용한 작가들로써 선생님의 작품에 보이는 신선하고 매우 감각적인 비유법이나 명증한 이미지는 거기서 영향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는 선생님이 편찮으셔서 누워 계신다고 해서 수색으로 선생님택을 찾아 갔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누워 계시는데, 처연한 표정을 하시며 “내가 죽으면 몇 사람이나 내 시를 기억 할까?” “선생님의 시 좋아하는 사람 많을 겁니다.” 했더니, 한참 뒤에 “자네는 내 고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라고 물으셔서 뜻밖의 심각한 질문에 대답을 못하고 멍칫하다가 “혹시를 떠난 고독 아닙니까?” 했더니, 제 어깨를 치시며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그 때 저는 선생님도 당신의 시라든가 고독에 대해서 불안해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그 인간적인 모습에 대해 대단히 감동받았습니다.

선생님의 고독에 대해 제가 생각해 보면, 기질적인 성격에서 오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인간존재의 유한성에 대한 깨달음, 존재의 각성에서 오는 고독. 이러한 고독은 선생님의 「무형의 노래」, 「건고한 고독」 이란 시에서 아주 아름답게 물들어 있고, 선생님에게 있어서는 거의 절대적으로 군

림하다시피한 신으로부터 적을 잃는, 그리고 그 마지막에서 만나게 되는 고독 그 자체가 목적이 되고 시의 원천, 시의 대상이 됐습니다. 물론 선생님께서는 이 고독을 절대고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생님의 ‘절대고독’이라는 것은 『절대고독』 시집 속에 잘 나타나 있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 『절대고독』의 시편들을 쓰실 때, 제가 옆에서 보기는 대단히 고통스러워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시를 보면 ‘빠로 우려내는 말’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뼈를 깎아서 시를 쓰시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와의 치열한 추격을 통해서 선생님은 주옥같은 작품들을 창조해 내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1973년 아드님 결혼식 때 고혈압으로 쓰러지셨고, 그 뒤부터는 입맛이 변하셔서 그 좋아하는 커피도 못 마시셨습니다. 하루는 “내가 그 동안 교만했던가 봐. 하나님은 내 뒤통수를 쇠망치로 내리치신 거야!” 라고 말하시며, 참회하는 듯하셨습니다. 그 뒤로 선생님은 절대신앙으로 귀의하셔서 신앙시를 쓰셨습니다.

1975년 4월에 모교의 채플 시간에 기도를 하시면서 그대로 쓰러지셨고 그 길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茶兄先生

가을 하늘을
커피잔에 담아
無等茶로 마시고
마른 손가락 사이로
흐르는 孤獨을
당신의 삶과 같이
떼어 주시던 詩人.

서울에서도
얼음이 가장 나중 녹던
西쪽의 겨울을
속 內衣처럼 입고
十字家가 보이는
언덕길을
호올로 걸어가시던
詩人.

孤獨의 끝에서
永遠을 보고
이땅의 不義를
그 槍끝으로
거슬리며….

하늘과 땅 사이, 오직
깨어 있는 者들의
淸澄한 눈에
부어지던 純金의
빛갈이여!

靈魂은 위에 두고
땅만 내려다보시었기에
그 그림자
더욱
의로와 보이던 詩人.

語感이 따뜻하다고
金兄, 李兄처럼
茶兄이라 부르라시던
해가 갈수록
뒀 모습이 그리운 님이여.

II. 시세계- 사물(자연)의 이미지 구조와 초월적 상상력

1. 서론

김현승은 한국현대시에서는 보기 드물게 인간의 욕망이나 감정적 요소를 극도로 절제하면서 인간의 영혼과 그것의 구원문제를 고독으로써 탐구하여, 한국시에서 사상적 깊이와 형이상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는 시인이다. 종교적 관념을 감각적인 비유와 분석적인 이미지로 연결하여 시적 성공을 거두었고, 인간존재의 유한성과 소멸성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하여 본질적이며 영원한 세계를 지향하는 초월적 정신

의 시적 형상화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종교적(기독교적) 상상력의 한 전범(典範)을 보여준 시인이기도 하다.

그는 1934년 《동아일보》를 통해 데뷔한 이래 1975년 타계하기까지 총 300편에 달하는 시작품을 남기고 있다. 그의 시는 자연에의 동경과 예찬에서 출발하여 점차 인간의 영혼문제에 관심을 돌려 자아와 신앙간의 회의적인 갈등을 겪고 중국에는 기독교신앙으로 귀착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시세계를 이루는 중심주제는 역사와 현실인식, 자연과 사물의 본질 탐구, 존재론적 고독의 문제, 초월과 구원의 문제 등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역사와 현실의식을 드러내는 시는 기독교적인 윤리와 순수한 양심, 정의감을 바탕으로 불의에 항거하고, 사회 부조리와 비인간적 속박으로부터 참다운 인간의 자유를 획득하고자 한다. 그의 사물과 자연탐구는 자연이나 사물의 소멸에 대한 인식과 견고성(영원성)의 추구이며, 이 지상에서 인간은 결국 유한적인 존재라는 실존적 인식을 드러낸다. 존재탐구라는 다분히 철학적이고 인식론적 사유를 다양하고 독특한 이미지를 통해서 형상화함으로써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비가시적인 세계를 가시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그의 고독시편은 외적인 자연의 빛과 신과 인간의 행복한 교감을 떠나 인간의 내면세계로 눈을 돌렸을 때 만나게 되는 인간실재에 대한 깊은 성찰이었다. 즉 종교적 신앙의 이상세계로부터 초월지향의 대상이 시인 자신의 영성(靈性) 안으로 내면화하여 관념 자체가 된 것이 그의 고독이다. 거기서 인식되는 것은 인간의 근원적 심연으로, 무의식의 심층에 있는 하나의 '원형'이었으며, 중국적으로 그의 시의 발원이자 신과 진정한 만남을 위한 '지성소(至聖所)'와도 같은 것이었다. 아울러 전통적인 신약성서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자신의 전 생명을 바쳐 구도를 염원하고 갈구한, 그의 중기와 말년에 두러지게 나타나는 일련의 시편들에서 정통 기독교 신앙시인의 면모를 여실하게 보여주기도 한다. 그의 시 세계는 한 마디로 자아의 발견과 구원의 탐구로 대결한 신앙인이자 시인으로서의 양면성을 융합하여 시적으로 승화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시인의 종교적(기독교) 세계관과 시적 상상력에 의해 형상화된 시작품의 총체적 의미의 근본탐구로서, 그의 시에 나타난 사물(자연)의

이미지 구조와 ‘까마귀’의 상징성을 분석하여 그의 초월적 상상력을 해명하는 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한 시인의 작품세계, 즉 상상력의 세계를 밝힌다는 것은 그 시인 자신을 밝히는 것보다 그 시인을 이해하는 데 보다 전체적이며 완전성을 얻는 일이기 때문이다.

2. 사물(자연)의 심상구조

(1) ‘열매’와 ‘마른 나무가지’

김현승은 가을을 소재로 많은 시를 쓰고 있는데, 가을은 대지에 피어났던 푸르름을 저물게 하고 마지막으로 열매 맺게 하는 계절이다. 그의 시에서는 이 열매를 꽃 자체의 아름다움보다 그것의 결정체에 더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독특한 이미지로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면 꽃은 그 자체가 아름다움을 표상하는 반면, 열매는 무엇에 대한 결과로써 실용적인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김현승에게 있어서는 언제나 꽃보다는 열매를 소중한 이미지로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달엔
 먼 수평선이
 높은 하늘로 서서히 바꾸이고,
 뜨거운 햇빛과
 꽃들의 피와 살은
 단단한 열매 속에 고요히 스며들 것이다.

<가을이 오는 달> 3연

에서 보는 것처럼,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스며들어 보다 오래 남을 수 있는 것으로 열매가 표상되어 확실함이나 영원함에 대한 가치지향적인 태도를 드러낸다.¹⁾ ‘열매’라는 언어 속에 이미 ‘단단함’이 함유되어 있는데 굳이 ‘단단한 열매’라고 표현함으로써 자연으로서의 사물의 외연적 의

1) 그의 시에서 ‘보석’, ‘견고한 것’, ‘마른 나뭇가지’, ‘열매’, ‘납’, ‘참나무’ 등과 같이 견고한 이미지를 갖는 시어나 사물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현상은 이 같은 태도에서 연유한다.

미 이상의 내포적인 의미를 갖는 시적 표현이 되게 한다. 보다 오래 남을 수 있는 것으로의 가치지향적 의식에 의해 열매의 사물성이 관념의 상관물로서 의미화된다.

이렇게 육체적인 것, 지상적인 것의 소멸은 열매의 견고한 이미지로 보다 가치있는 세계로 지양(止揚)되며, 이러한 소멸 이미지는 초월적인 이미지로 전이되어 본질적으로 아름다운 것이 되게 한다. 꽃이 시들어 열매를 생성하는 구조는 ‘마른 나뭇가지’의 이미지를 통해서도 나타난다.

내 마음은 마른 나뭇가지
주여
나의 육체는 이미 저물었나이다!
사라지는 먼뎛 종소리를 듣게 하소서.
마지막 남은 빛을 공중에 흩으시고,
어둠속에 나의 귀를 눈뜨게 하소서.

<내 마음은 마른 나뭇가지> 3연

저무는 가을 풍경을 배경으로 하여, 시적 자아와 자연과의 은밀한 교감을 드러내는데, 이러한 정조(情調)에서 자연과 시인은 하나로 동화되며 존재의 각성, 즉 개안(開眼)의 시간이 열리는 것이다. 육체는 사라지고, 비고, 영적인 것으로 남은 존재론적 각성이 ‘마른 나뭇가지’라는 선명한 이미지로 제시된다. 나무와 시인의 육체가 저물듯이, 시간은 밝음이 사라지고 점점 어둠이 오는 때가 된다. 밝음에 의해 드러나던 사물의 모습도 소멸되는 이때를 지나면 시인의 관심도 밝음에서 어둠 쪽으로 전환된다.

이제는
밝음의 이쪽보다
나는 어둠의 저쪽에다
귀를 기울인다.

<轉換>에서

이쪽과 저쪽으로 양분되어 있는 세계에서, 시인은 이쪽보다는 ‘어둠의 저쪽에다’ 관심을 둔다.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어둠의 저쪽 세계를 감지하기 위한 노력이다. 어둠의 세계에 귀 기

울인다는 것은 이쪽보다 어둠의 저쪽, 즉 초월적 세계가 시인에게는 더욱 가치 있는 세계임을 암시해주는 것이다.

(2) '눈물'

자연 속에서 '꽃 - 열매'의 관계에 대응되는 것으로 '웃음 - 눈물'의 이미지를 들 수 있다. 꽃이 '열매'를 통해 가장 마지막 모습을 매듭지은 것처럼 이 시인에게 가장 나중 지니인 것은 오직 '눈물'뿐이다. 화사한 꽃은 웃음과, 열매는 눈물과 각각 대응되는 구조를 보여준다. 열매와 눈물은 모두 맨 나중에 생겨나는 결과물이라는 공통성을 가진다.

더러는
욕토(沃土)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저.....

흙도 티도
금 가지 않은
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

나의 가장 나중 지니인 것도 오직 이뿐!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들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 주시다.

<눈물> 전문

'눈물'은 일반적으로 젖어 흐르는 이미지를 가지는데, 2연에서 보면 '흙도 티도 금가지 않은'이라 하여 견고성과 윤리성의 이미지로 표상하여 완전성과 변치 않는 영원성을 지향하는 태도를 또다시 확인하게 된다. 꽃이 시들 듯이 웃음도 타락하기 쉬운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시인은 웃음을 거부하고 아름답고 변하지 않는 '눈물'을 택한 것이다. 이렇게 감상적 정조를 배제시키고 견고성을 추구하는 것은 그가 '프로테스탄티즘의 경건

성에 의지하여²⁾ 있기 때문이다. 이 ‘눈물’의 논리적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슬픔>이라는 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슬픈 눈에는
그 영혼이 비추인다.
고요한 밤에는
먼 나라의 말소리도 들리듯이.

슬픔 안에 있으면
나는 바르다!
신앙이 무엇인가 나는 아직 모르지만
슬픔이 오고나면
풀밭과 같이 부푸는
어딘가 나의 영혼.....

<슬픔> 부분

이 시는 무엇보다도 슬픔을 통해 영혼의 생명력을 느끼고 있다. ‘먼 나라’는 ‘먼 끝’, ‘먼 곳’ 등과 함께 그의 시에 자주 등장하는 시어의 하나이다. ‘슬픈 눈’을 ‘먼 나라의 말소리’를 듣는 것에 비유한 것은 ‘먼 나라’라는 초월적 세계³⁾에 대한 서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그리고 ‘슬픔’에 의해 영혼이 바르게 되고 부풀어 오르게 된다는 것은 슬픔에 의해 모든 것이 정화되고 시인의 영혼이 투명하게 숨쉬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 방울의 눈물은 “타는 혀끝을 적시어 주는”(〈건강체〉) 영혼의 오아시스와도 같은 것이 된다. 이러한 슬픔은 ‘눈물’의 맑고 논리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실질적인 원천이 된다고 볼 수 있다.

(3) ‘보석’

김현승이 우리 시사에 끼친 가장 큰 업적으로는 관념이나 사상을 객관

2) 김현·김윤식, 한국문학사, 민음사, 1984. 279면.

3) 인용시 마지막 연의 첫행에 ‘신앙’이라는 말이 매우 갑작스럽고 어색한 느낌이 있으나 ‘먼 나라’에 의해 상상의 흐름이 초월적 세계로 향하고 있음을 알게 되므로 그 어색함이 시적 맥락에 의해 보완된다.

적 상관물을 통해 이미지화하는 표현기법의 탁월성이라 할 수 있겠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보석’의 이미지이다. ‘보석’은 열매의 단단함과 가치체로서의 의미를 함께 갖는, 보다 포괄적 의미를 지닌 시적 등가물이다. ‘보석’은 열매보다 더 굳고 단단하며 스스로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결정체이기 때문에 그의 시에서 ‘열매’와 함께 또 하나의 중요한 이미지로 제시된다.

나의 가슴에 언제나 빛나는 희망은
 너의 불꽃을 태워 만든 단단한 보석.....
 (중략)
 너는 누구의 연소(燃燒)하는 생명인가?
 너는 아직도 살고 있는 신(神)에 가장 가깝다.

<빛> 4, 7연

이 시에서도 ‘단단한’이라는 수식어으로써 ‘보석’ 이미지의 견고성을 유달리 강조하고 있는데, 인간의 정신을 빛나는 희망으로 새롭게 하는 빛의 이미지를 여기에다 결부시킨다. ‘빛’이 보석의 본질을 이루는 것은 보석이 빛의 불꽃을 태워서 이루어진 결정체이기 때문인데, 보석의 근원으로서의 빛은 “아직도 살아 있는 신에 가장 가깝다”라 하여, 일시적이거나 현세적이기보다는 영원한 절대적 가치성을 표상한다. 이는 종교적 신앙과 사물의 탐구가 시적 감수성으로 결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시인의 상상력의 패턴은 ‘꽃-웃음’, ‘열매-눈물’이 대응되었듯, ‘보석-빛’이 각각 대응되는 구조를 가지며, ‘열매-눈물-보석’으로 연결되는 이미지 구조를 통해 그의 종교적 상상력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를 잘 볼 수 있는 시가 <가을>이다. 3연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꽃잎을 이겨
 살을 빛던 봄과는 달리
 별을 생각으로 짊고 다듬어
 가을은
 내 마음의 보석을 만든다.

이 시는 ‘봄-땅-살’과 ‘가을-하늘-생각’으로 대구를 이루고 있어, 육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 지상적인 것과 천상적인 것을 각각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자연에서의 ‘열매’가 시인의 마음속에서는 ‘보석’으로 대치되어 있다. 자연에 있어서는 ‘열매’가, 인간에 있어서는 ‘눈물’이, 사물에 있어서는 ‘보석’이, 시에 있어서는 ‘언어의 뼈마디’⁴⁾가 지상에서는 최대의 아름다움을 지닌 가치체로 표상된다. 이렇게 ‘열매’, ‘눈물’, ‘보석’ 등은 모두 관념의 객관적 상관물이 되어 다양하고 풍요로운 초월적 이미지의 세계를 형성한다.

(4) ‘재’와 ‘검은 빛’

‘재’의 이미지는 사물을 태우고 남은 것이라는 맥락에서 ‘열매’, ‘눈물’, ‘보석’의 이미지와 연결된다. 김현승 시에서 이 ‘재’의 이미지는 계절의 끝이라 할 수 있는 겨울과 태움, 불꽃, 어둠(밤)의 이미지들을 배경으로 하여, 그의 종교적 상상력의 패턴이 어떤 세계관에서 연유된 것인가를 시사해 주는 중요한 이미지로 제시된다.

시 <참나무가 탈 때>에서 보면, ‘재’는 ‘건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불꽃으로 타고 남은 것으로, 지상에 남아 있는 사물성의 최후 정수(精髓)의 가치체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 자신도 될 수만 있으면 ‘재’로 남고자 한다.

나는 무엇보다 재로 남는다.
바람만 불지 않으면 재로 남는다.
무덤도 없는 곳에 재로 남아
나는 나를 무릅쓰고 호울로 엮드린다.

<四行時> 마지막 연

‘재’의 이미지는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사물체의 의미를 가지며, 그래서 시인도 ‘재’와 동일해지고 한다. 그러나 재의 존재성은 무풍(無風)을 전제로 해서만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만일 영원히 바람만 불지 않는다면 재는 소멸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할 수 있을 것이고, 시인이 지향하는 초월적 세계는 ‘재’를 통해서 성취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재’는

4) ‘재’의 이미지는 만해(萬海) 한용운 시의 ‘타고 남은 재’의 이미지처럼 다형시의 본질을 드러내주는 이미지로 보인다.

‘바람’에 날려 소멸할 수밖에 없다는 사물의 유한성의 본래적 인식에 다다르게 된다.

나는 나의 재로
나의 모든 허물을 덮는다
나의 모든 기쁨과 슬픔을
나는 한줌의 재로 덮고 간다.

그러나 까마귀여,
녹슨 칼의 소리로 울어다오.
바람에 날리는 나의 재를
울어다오.

나의 허물마저 덮어주지 못하는
내 한줌의 재를
까마귀여,
모든 빛깔에 지친
너의 검은 빛 - 통일의 빛으로
울어다오.

<재> 전문

시인은 ‘재’를 가장 본질적인 것으로 표상하고자 했으나 ‘바람’에 의해 무화(無化)되고 만다. 재가 바람에 날라기 때문에 지상에서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아무 것도 없다. 따라서 지상적인 것은 전적으로 부정되고 절망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자기의 존재성이 재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한계 상황에 처한 것이다. 그리하여 시인은 재의 유한성을 초월하는, 즉 비상성(飛翔性)의 대상으로 ‘까마귀’⁵⁾를 의미화하게 된다.

시인은 붕괴된 자신의 세계에 대해 까마귀로 하여금 “녹슨 칼의 소리로 울어달라.”고 한다. 이는 어렵פות이 인식하는 정조 속에서 그의 영혼의 각성이 예감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의 창조적 상상력은 다시 한번 굴절, 심화된다. 즉, 절망의 심연을 통해 통일의 빛으로 비상하는 영혼의 이미지

5) 이 갑작스러운 ‘까마귀’의 출현은 이 시만을 가지고는 이해될 수 없다. 작자는 <재>보다 앞서 발표한 <산까마귀 울음소리>에서 ‘까마귀 울음’의 상징성을 암시하고 있었다. ‘까마귀’에 관해서는 ‘까마귀’의 상징성과 함께 뒤에서 고찰된다.

가 ‘까마귀’에 의해 형상화되는 것이다.

4연의 ‘검은 빛’은 까마귀의 빛깔에서 연상된 것으로 역시 이 시인의 상상력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중요한 빛의 심상이다. ‘검은 빛’은 일반적으로는 어둠이나 절망의 이미지를 주는 빛이지만, 시인은 모든 ‘빛깔에 지친 통일빛’이라고 한다. 마치 ‘보석’의 이미지에서 물질의 결정과 빛의 근원으로서의 빛을 암시하듯이 ‘검은 빛’은 사물과 현상을 드러내던 색으로의 빛이 다 사라지고 현상의 빛이 다한 데서 ‘빛의 정수’로써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이는 모든 사물이 타고 남은 마지막 정수의 모습으로의 ‘재’의 이미지에 대응되는 구조이다. 이리하여 검은 빛은 죽음의 빛이라는 일반적 의미가 시인의 초월 지향적 이념의 등가적 표현으로 변형되어 ‘통일빛’이 된다. ‘갯빛’까지는 지상적인 빛깔이고 결국 허물을 덮지 못하는 빛으로 절망의 빛이었지만, ‘검은 빛’은 절망과 좌절을 함께 포용하는 ‘빛의 빛’이다.

이렇듯 김현승은 자신의 관념을 ‘열매’나 ‘눈물’, ‘보석’, ‘재’ 등의 사물을 통해서 이미지화하고 있다. 그에게 있어 자연이나 사물은 그 자체로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추구하고 있는 사상이나 관념을 드러내는 수단이 된다. 사상이나 관념의 사물화는 비유의 형식을 취하고 이 비유적 심상으로 관념을 육화시켜 새로운 이미지를 창조한다. 그런 면에서 그의 자연은 즉물적 자연이 아니라 주관에 의해 새로운 차원으로 변형시킨 이미지로서의 자연이며, 이러한 이미지의 세계를 통해 그가 꿈꾸는 초월적 세계를 형상화시킨다.

3. ‘까마귀’의 상징성

김현승 시에 나타나는 ‘까마귀’는 우리나라의 전통적, 일반적 원형심상을 나타내는 이미지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기독교적 세계관에 접맥되어 독특한 개인적, 시적 상징으로 그의 종교적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상징적 이미지이다. 그의 ‘까마귀’는 “한 시인의 상징적 삶과 그의 실제생활에 대하여 지속적인 활기를 불어넣고 타당성을 가질 뿐 아니라 시 작품 속에서 다양한 형태를 취하며 수시로 반복해 나타나

는”⁶⁾ 개인적 상징이라고 볼 수 있다.

앞장에서 ‘재’의 이미지를 살펴보면서 시인은 바람에 날리는 재의 절망을 회복해 줄 대상으로 ‘까마귀’를 암시했었다. 시 <재>에서는 바람에 날릴 수밖에 없는 재의 숙명을 “까마귀여 울어달라.”고 반복해서 부르고, 청원하고 있었다. 과연 ‘까마귀’의 울음소리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겨울 까마귀 찬 하늘에
너만은 말하며 울고 간다!

목에서 뺏다
살에서 터지다
뼈에서 우려낸 말
중에서도 재가 남은 말소리로
울고 간다.

저녁 하늘이 다 타 버려도
내 사랑 하나 남김 없이
너에게 고하지 못한
내 뼈 속의 언어로 너는 울고 간다.

<산까마귀 울음소리> 2~4연

다른 새의 울음은 ‘소리’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하지만 까마귀는 ‘말하며 울고 가는’ 새로서, 그 울음의 이미지를 구체적 사물을 빌려 ‘살 - 뼈 - 재’로 의미를 점점 심화시키고 있다. 시 <가을>에서 봄에는 언어 가운데서 노래를 고르고, 가을에는 노래 속에서 ‘언어의 뼈마디’를 골랐는데, 여기서 까마귀는 그 뼈마디를 우려낸 말 중에서도 ‘재가 남은 말소리’로 울고 간다고 하고 있다. ‘뼈에서 우려낸 말’은 가장 본질적 의미의 말을 나타내는 것이며, ‘재가 남은 말’은 모든 물체를 다 불태우고 남은 순수하고 맑은 언어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까마귀 울음소리는 가장 근원적인 순수한 의미를 지닌 소리이다.

6) 이승훈, 시론, 고려원, 1983. 152면.

4연에서는 “내 뼈속의 언어로 울고 간다.”고 하여 까마귀 울음소리와 시인의 언어를 동일화하고 있다. 그래서 까마귀는 시인의 못다 이룬 꿈을 이루어 줄 수 있는 희망의 상징이며, 구원의 언어를 말하는 새가 된다. 시인이 까마귀를 초월의 언어로 우는 구원의 존재로 본 것은 “내가 아무리 많은 시를 평생에 내어 뱉은들 그것들이 겨울 까마귀의 울음소리만큼 사람들의 귀와 가슴에 부딪칠 수는 없을 것이고, 느끼고 생각하게 할 수도 없을 것이다.”⁷⁾라고 진술한 것에서도 뒷받침된다.

그의 대표작 <가을의 기도>에서 보면, 까마귀는 “굽이치는 바다와 /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영혼의 새’로 표상되어 있다.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는 지상에서 겪는 추억과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마른 나뭇가지’는 까마귀가 도달한 지상의 마지막 목적지이자 거기서 비상하는 출발점이기도 하다. 앞장의 ‘마른 나뭇가지’의 이미지는 시인과 동일한 것이었기에 ‘마른 나뭇가지에 다다른 까마귀’는 시인의 마른 육체에 하늘로 비상할 영혼이 앉은, 하나가 된, 초월과 구원의 의미를 구상화시킨 상징적 이미지인 것이다.

내가 십이월의 빈들에 가늘게 서면
나의 마른 나뭇가지에 앉아
굳은 책임에 뿌리박힌
나의 나뭇가지에 호울로 앉아,

저무는 하늘이라도 하늘이라도
떨뚱거리다가,
벽에 부딪쳐
아, 네 영혼의 흙벽이라도 덤북 물고 있는 소리로,
까아욱--
깍-

<겨울까마귀>에서

계절의 끝이며 한 해의 마지막 달인 십이월에 까마귀는 빈들의 마른 나뭇가지 위에 앉아 있다. 마른 나뭇가지는 ‘굳은 책임에 뿌리박힌’, 즉 종교

7) 김현승, 산문집 고독과 시, 지식산업사. 1977. 37,38면.

적(윤리적) 인간의 의인적(擬人的) 표현이다. 그 종교적 실존 위에 앉아 영혼의 새는 구원의 소리로 운다. 하늘도 다 저물어 어둠이 찾아드는 시간에 지상적인 모든 형상의 빛, 그 빛의 빛인 '검은 빛'을 두르고 모든 빛을 빛이게끔 하는 그 존재의 빛, 즉 '통일의 빛'으로 운다.

이렇게 지상의 모든 '소리'와 '빛깔'은 까마귀라는 형상 속으로 응집된다. 이제 금과 은과 같이는 울리지 않아 '납(鉛)' 덩어리에 비유했던 그의 시(詩)도 마침내 언어의 옷에서 벗어나 침묵으로 돌아가려 한다. “나의 시는 / 나에게서 차츰 벗어나 / 나의 낡은 집을 헐고 있다.”(<고백의 시>) 시인은 시를 간직하고 있는 ‘낡은 집’을 헐려고 한다. 시인의 육신은 시를 담아 놓은 형식이고 시는 그 속에 담겨 있는 본질적 가치이다. 시인과 시는 서로가 서로를 담고 담기어 사는 집이다. 한쪽이 붕괴되면 다른 한쪽도 무너진다. 시인의 육체가 마른 나뭇가지처럼 저물어가면 시도 그 집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렇게 모든 현상적인 것이 사라져가는 시간에 구원의 노래가 되지 못하는 시는 마르고 고통을 겪는다.

섰다.
입을 다물었다.
사라졌다.

빈 하늘만이
나의 천국으로 거기 남아 있다.

사랑과 무더운 가슴으로 쓰던
내 시의 마지막 가지 끝에.....

<완전 겨울>

모든 것은 사라져가고 ‘영혼만 서고 입을 다물었다.’ 언어는 침묵하고 영혼이 깨어 기다리는 시간이기도 하다. 지상의 것을 사랑하며 뜨거운 가슴으로 쓰던 ‘내 시의 마지막 가지 끝’은 시인의 ‘마른 나뭇가지’의 끝이며, 이 세상의 것이 사라지고 하늘이 열리는 ‘사이 공간’이다. 그 가지 끝에서 모든 빛과 모든 계절이 끝나고 ‘빈 하늘만이 나의 천국’으로 열려오는 것이다. 지상의 것의 끝과 ‘나의 천국’의 ‘사이 공간’인 ‘마른 나뭇가지’

위에 앉는 것은 ‘영혼의 새’ 까마귀이다. 까마귀는 지상의 모든 빛깔과 소리를 응집시킨 것의 마지막 형상인 동시에 그 사라짐의 끝에서 비상하는 영혼의 상징이다. “인간의 고독과 인간의 천형(天刑)을 자기 한 몸에 그 빛깔과 그 소리로 집중하여 형상화한”⁸⁾ 상징의 새 까마귀는 지상과 천상의 공간이 하나로 열리는 ‘지평선’을 향해 날아간다.

‘지평선’은 하늘과 땅이 하나로 만나는 경계이자 땅이 끝나는 곳이며 동시에 하늘이 열리는 사이공간이다. 지상에서 겪었던 ‘괴롭과 슬픔도’ 하늘이 열리는 땅의 끝에선 모두 사라지고 하나의 아름답고 그리운 추억으로 남는다. 지상에서 ‘지나가 버린 모든 시간’과 ‘잊히지 않는 모든 기색’은 지평선에서 끝난다.⁹⁾ 까마귀는 이제 소멸될 수밖에 없는 지상적인 것의 비애를 자기 몸에 두르고 지평선을 넘어 영원한 초월의 세계, 구원의 세계에 다다를 것이다. 이 비상하는 새와 함께 시인의 영혼도 날아간다.

산 까마귀
 긴 울음을 남기고
 지평선을 넘어갔다.
 사방(四方)은 고요하다!
 오늘 하루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넋이여, 그 나라의 무덤은 평안한가.

<마지막 地上에서> 전문

까마귀는 시인의 고독과 소멸하는 것의 아름다움과 아픔을 지닌 채 지상의 끝을 넘어 ‘나의 영원(永遠)으로’ 날아간다. 지상에는 재로 남은 본질의 말인 ‘긴 울음’ 소리를 남기고 지평선을 넘어 갔으나, 그 울음소리는 아직도 지상에 남아 사라져가는 모든 것들을 구원의 언어로 떨리고 있는

8) 김현승, 앞의 책, 35면.

9) 시 <지평선>(전문) 참조.

한 세상 만나던 괴롭과 슬픔도 / 끝에선 하나로 그리움이 되고,
 여기선 우람한 기적(汽笛)도 / 거기선 기러기 소리로 날아간다. //
 지나가 버린 모든 시간 / 잊히지 않는 모든 기색
 나는 그것들을 머언 지평선에 세워두고 / 노을에 물든 그 모습으로

것이다.

시인이 지향해오던 초월적 정신의 추구는 ‘초월의 빛’을 두른 영혼의 새 ‘까마귀’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까마귀’는 시인이 꿈꾸던 영원의 세계를 향해 날아가는 ‘지상적 초월의 새’의 상징임이 드러났다. 김현승 시인의 종교적, 초월적 상상력이 형상화한 시적 상징인 ‘까마귀’ 이미지는 우리의 문학과 정신상 독특한 의미로 접맥되어 지속적인 빛을 발할 것이다.

4. 맺는말

지금까지 김현승 시의 중심 이미지를 이루고 있는 사물의 이미지로서 ‘열매’, ‘마른 나뭇가지’, ‘눈물’, ‘보석’, ‘재’ 등이 암시하는 의미와 ‘까마귀’의 상징성을 분석하면서, 이들의 유기적 관련성을 통해 그의 시적 상상력의 패턴과 기독교적 세계관이 어떻게 시작품으로 형상화되었나를 고찰해 보았다. 그의 초월지향의 사상은 현상적 존재의 소멸성과 견고성, 그리고 비상성을 통해 다양하게 심화되어 갔음을 확인하였다. 그의 시의 이미지와 상징의 구조를 통해 그의 자연관, 인생관, 시관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그의 자연관(사물관)은 유한성과 소멸성으로 영원한 본질적 세계와는 구별되는 이원적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으며, 따라서 그의 시에 나타나는 사물의 이미지는 시인의 초월의 정신에 의해 의미화된 가치 지향적 이미지이다. 현상적 존재로서의 사물은 인간의 정신에 의해 새로운 가치성을 형성할 수는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영원성에 닿아 있지 않은 기독교적 자연관이라 할 수 있다.

인간존재는 그 자연성의 소멸에도 불구하고 영혼을 가진 인격성으로 해서 절대자의 주관성을 창조적 행위로 암시할 수 있는 존재이고, 영원한 세계를 지향하는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의 본질탐구, 영원추구는 기독교적 윤리성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그의 시세계는 자연의 유한성과 소멸성을 통해 초월지향의 정신이 창조적 상상력에 의해 영원한 존재성을 암시하고 상징하는 고통스럽고 아름다운 이미지의 세계를 이루고 있다.

김현승의 시사적 의의는 인간존재의 유한성과 소멸성에도 불구하고 그

것으로 하여 본질적이며 영원한 세계를 지향하는 초월적 정신의 시적 형상화로 우리 현대시에 사상적 깊이와 형이상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